



Read the full book on: [10.1787/health\\_glance-2013-en](http://10.1787/health_glance-2013-en)

## 2013 년도 '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지표' 요약

### 국어 개요

「2013 년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지표」는 OECD 국가 및 신흥경제국(BRICS)에서의 건강상태, 보건의료 서비스, 정책과 관련된 추세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. 기대수명 또는 영아사망률과 같은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, 경제적 부, 교육 및 기타 사회지표에서의 불평등이 건강상태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러한 보건의료 격차는 생활조건과 근로조건 차이 및 여기에서 제시된 건강관련 생활습관(예, 흡연, 과음, 신체활동부족, 비만 등)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.

보건의료지출은 1 인당 지출,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, 최근의 경향 등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. OECD 전체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, 2000-2009 년 사이에 일인당 보건의료지출은 연간 4.1% 씩 늘어났지만, 다수의 회원국, 특히 유럽의 회원국들이 정부부채와 예산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보건의료 관련 재정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2009-2010 년과 2010-2011 년 사이 증가폭이 둔화되어 0.2%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. 유럽 이외의 회원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했지만,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.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.

세부 분야별로 지출에서 영향을 받은 양상이 달랐다. 2010-2011 년 의약품 및 예방관련 지출은 1.7% 감소했지만, 병원관련 지출은 1.0% 증가했다.

###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이 상승된 반면,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늘어남

- 2011 년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기대수명은 1970 년 비교해서 10 년이 상승된 80 세 이상을 기록했다. 스위스, 일본,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길다.
- OECD 전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에 비해서 5.5 년 길다.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기대수명이 6 년 정도 길다.
- 당뇨나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. 2011 년 OECD 회원국의 20-79 세 성인 중의 거의 7%, 즉 8,500 만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.

### 대부분 회원국에서 국민 1 인당 의사 수가 증가되었지만,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가 2 배 많음

-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2000 년 이후에 절대수치 및 인구 일인당 의사 수로 본 의사의 수가 증가했다. 일부 소수의 회원국만이 여기에서 예외이다.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서는 일인당 의사 수가 실질적으로 전혀 증가되지 않았으며, 이스라엘에서는 감소했다.
- 2011 년 OECD 전체 평균으로 일반의 1 명 대비 전문의 2 명이 있다. 일반의 수의 증가 둔화 또는 감소는 전체 국민의 일차의료 접근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.

---

### 입원일수 감소 및 제네릭약품의 사용 증가가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지만, 의료행위에서의 큰 편차는 과다진료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

-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2000년 9.2 일에서 2011년 8 일로 떨어졌다.
- 제네릭약품의 시장점유율은 다수의 회원국에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. 하지만 특셈부르크, 이탈리아, 아일랜드, 스위스, 일본, 프랑스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25% 미만인 반면에, 독일과 영국에서는 점유율이 75%에 이르는 등 회원국별 편차가 크다.
- 각종 진단기술과 외과기술의 이용률에는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지만, 이는 임상적 필요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. 예를 들면, 2011년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출산의 45% 이상이 제왕절개 분만이었으며, 이는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에 비해 3 배이고, 과다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---

###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급성진료와 일차의료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

- 심장마비, 뇌졸중,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치료에 진전이 이루어졌으며,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졌다. 평균적으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치명률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30%가 낮아졌으며, 뇌졸중의 경우에도 거의 25% 정도가 줄어들었다. 자궁암, 유방암, 대장암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암의 생존율이 향상되었다.
- 천식이나 당뇨 같은 (입원을 피할 수 있는)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의 감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차의료의 질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상되었다. 그러나 여전히 모든 회원국에서 이러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.

---

###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이 시행되나, 각 국가별로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정도는 다양함

-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필수적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보편적(또는 준보편적)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다. 2004년 개혁을 한 이후 멕시코에서는 의료보장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의 90%에 육박하게 되었다. 미국의 경우, 2011년 전체 인구의 15%가 아직도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, 의료개혁법(Affordable Care Act)이 시행되는 2014년 1월부터는 보장 범위 및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-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(out-of-pocket spending)이 의료접근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. 평균적으로 의료관련 지출의 20%를 환자가 직접 지불한다. 이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10% 미만에서 칠레, 한국, 멕시코의 35%까지의 커다란 편차가 존재한다.
- OECD 전체 회원국에서 본인부담 지출 중 약 19%가 치과진료에 사용되었으며, 12%는 안경, 보청기 및 기타 치료기구에 사용되었다.
-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 및 치과진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, 의료전문가나 치과의사의 진료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--

### 비공식 돌봄(informal care)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및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압박 증가

- OECD 회원국 전체에서 65세 기점 평균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여, 2011년을 기준으로 여성 약 21년, 남성 약 18년이 되었다. 하지만, 증가된 기간 중 여러 해를 만성질환과 더불어 산다. 예를 들면, 85세 이상 노인들의 1/4 이상이 치매로 고통받는다.
- OECD 회원국 전체에서 50세 이상 인구 중 15% 이상이 부양가족 또는 친구를 간병하고 있으며, 이러한 일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.
-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공공지출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매년 4.8%씩 증가했으며, 이러한 수치는 의료관련 지출 증가속도 보다 높다.

© OECD

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.

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.

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.

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 주소: [www.oecd.org/bookshop](http://www.oecd.org/bookshop)

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,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: [rights@oecd.org](mailto:rights@oecd.org) 팩스: +33 (0)1 45 24 99 30.

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(PAC)

2 rue André-Pascal, 75116

Paris, France

본 기구 웹사이트 [www.oecd.org/rights](http://www.oecd.org/rights)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

**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!**

© OECD (2013), *Health at a Glance 2013*, OECD Publishing.

doi: 10.1787/health\_glance-2013-en